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행로에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정치적결정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오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을 조직전개하면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와 난관을 정면돌파하며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역사적과업을 실현해나가고있다.

당 제7차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기간의 굴함없는 투쟁과정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는 비상이 높아지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전반에서 커다란 혁명적전환이 이룩되었다.

반면 후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되었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본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향한 지나온 5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들을 분석총화하고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의 새로운 요구에 기초하여 올바른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할 목적됨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한다.
2.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의정은 다음과 같다.
  - 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 2)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 3)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 4)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3.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대표자선출비율은 당원 1,300명당 결의권대표자 1명, 후보당원 1,300명당 발언권대표자 1명으로 한다.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주체109(2020)년 8월 1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이 직면한 주객관적환경과 조선반도

주변지역정세에 대하여 분석하시고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4년간 조선로동당과 국가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히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의 마지막해인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달성한 목표수행실적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해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연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우리 혁명의 중대한 시기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립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로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그 집행을 담보할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대회운영과 관련한 강령적지침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회에서 토의할 안건들과 대회 준비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이 당의 기본로선과 정책, 결정관철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업정형을 제때에 정기적으로 총화하면서 좋은 성과는 적극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결함은 속히 극복하고 시정대책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면돌파전의 요구에 맞게 내적잠재력과 발전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과 올해에 진행된 당정치국회의들에서 제시된 중요과업들을

다같이 힘있게 내밀어 당 제8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 초안을 랑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행로에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당 제8차대회소집을 결정하는 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랑독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써 상징된 의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소집에 관한 역사적 결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새로운 상승단계로 조직령도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조선로동당의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된다.

본사기자



#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해 쌓으신 불멸의 업적

## 거룩한 애국헌신의 천만리

### 잊을수 없는 노래

8월 25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화국무력에 대한 평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애순함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을 찾으시어 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뜻깊은 사변이었다.

총대가 약하던 망국민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더우기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침략과 발책등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지키자면 총대를 강화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주체적립장과 관점에서 진행해나가도록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평도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자위적무장력으로 더욱 장성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돌이켜보면 공화국의 력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중엽 공화국인민들은 자주적군위병이 되느라,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느라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었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자본주의복귀를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총공격의 화살이 조선에 집중되었고 련이은 자연재해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력을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수호하실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시고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셨었다.

그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군력강화와 조국수호의 선군길을 걸고 또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다박출소와 초도, 판문점, 오성산, 351고지, 1211고지를 비롯한 조국방선의 전초기와 진지들에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그이의 선군령도의 자욱이 새겨졌다.

찾으시는 인민군부대들마다에서 군인들에게 조국수호의지가 담긴 기관총과 자동보총, 쌍안경을 안겨주시고 별적의 기상이 나뉘는 훈련장에서 위대한 훈련을 지도해주시던 인민의 령장의 탁월하고 세심한 손길이 있어 인민군대는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도록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춘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없이 걸으시었던 선군길은 감동없는 들을수 없는 고귀한 헌신의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어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들을 돌이켜보시면서 나는 오성산초소에도 두번이나 가보았다, 오성산에 올라가자면 칼벼랑길을 백년두굴이나 돌아야 한다. 오성산초소에 처음 갈 때에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차가 전진하지 못하고 자꾸만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그래서 나는 차에서 내려 차를 밀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자그마한 폐속정으로 풍랑

사나운 바다길을 항행하여 조도방어대와 해군부대를 시찰하신 사실과 어느날에는 온 하루 인민군부대들을 시찰하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전선서부에서 동부으로 달린 선군거리가 무려 1000여리에 달했다는 사실들을 통해서도 그이께서 걸으신 선군장정의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길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결쟁이는 피로로 야전차에서 잠시 드시었던 쪽잠, 노력바위에 앉으시어 그리도 달게 드시던 커피맛, 야전숙음과 수수한 잠바웃...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상징하는 이 모든것이 눈보라강행군, 십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빨찌산식강행군이라는 초강도강행군길과 함께 더욱더욱 사무치게 안겨온다.

한두달도 아니고 한해도 아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르시었던 오성산의 칼벼랑길

니 장장 반세기이상 눈비바람 다 맞으며 병사들을 찾아, 방선 초소들을 찾아 전선길을 걸고 걸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전기간 이어가신 강행군길은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 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에 달한다. 전대미문의 역경을 헤쳐나가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걸으신 길만 하여도 지구를 몇바퀴 돌고도 남을 거리와 맞먹는다.

이 불멸의 선군장정이 있어 이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주제 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만방에 파시될수 있었으며 주체철, 주체비날론, 주체비로가 팽창 쏟아져나오고 공화국의 역센 기상이 높이 떨쳐질수 있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라오르는 불길이 되

여 민족자주위업수행에 모든 것을 바치시며 조국청사에 불멸의 업적을 아로새기신 걸출한 선군령장의 성스러운 한생이었다.

오늘 부강조국건설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1(201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을 찾으시어 그 때로부터 오성산과 판문점, 초도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다주시며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고 나라의 국방공업을 튼튼한 자위적국방공업으로 더욱 발전시키시었다.

그처럼 짧은 기간에 나라의 국력을 최대로 강화하시어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평도를 목격하면서 공화국인민들은 주제조선의 불패성과 승리,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백두산악과도 같은 필승의 신념과 기상,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나라의 군력강화와 부강조국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군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공화국은 영원히 이 세상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존엄떨칠것이라는것이 뜻깊은 8월 25일을 맞는 전체 인민들의 불멸의 신념이다.

리영수

## 탁월하고 세련된 평도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군념원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그이께서는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어 나라의 안전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평도하신다.

군력강화를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평도는 인민군대가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고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벽한 무진막강한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최전방초소들과 포연서린 전투훈련장들, 위협천만 시험발사장들에는 견결한 반제자주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 필승의 령관을 지니시고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하여 기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군인들이 있는 곳은 아무 리 위험하다고 하여도 다 가보아야 한다. 군인들이 있어 최고사령관도 있다고 하시면서 작은 목숨에 오르시어 풍랑사나운 바다길도 항행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군력강화를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백두의 혼련열풍과 명사수, 명도수운들의 불길이 새차게 타번지도록 하시었고 군인들의 총합전술훈련과 화력타격훈련도 지도하시어 인민군대가 불패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더욱 힘있게 떨치도록 이용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공화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진로를 환히 밝혀주고계신다.

발전하는 시대와 격변하는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명시한 그이의 사상리론은 과학성과 진리성, 거대한 생활력, 그리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앞당기는 백승의 기치로 되고있다.

인재와 과학기술을 주되는 전략자원으로 틀어쥐시고 인민의 자력갱생정신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총폭발시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평도에 의하여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이 힘있게 파시되고 국가경제발전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지고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자기 도와 공장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고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암살책동속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가 장성강화되고있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고 수령님들의 평생의 사랑을 다 합쳐서 인민의 념원과 꿈을 모두 이루어놓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이고 목표이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지에 의하여 10년으로 주름잡는 비야와 변혁이 일어나고 사회주의문명창조의 빛나는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민의 웃음소리, 생생의 동음높이 울리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과 생가지지들은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정을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맞고보시는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로고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뜻깊은 8.25를 맞는 나에게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와 마음을 안고 부르는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의 구절구절이 떠올랐다.

주체의 해불을 높이 드시어 인민은 노래하네 친근한 이름 자주의 앞길 밝히는 김정일동지 천만리 따르리 길이 받들리

이 노래가 나온것은 1990년대 초엽이다. 그때로 말하면 동유럽에서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복잡다단한 시기였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가 버리면 죽음이요 라는 필승의 신념을 가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 다그쳤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주체사상은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이라고 하시어 인민의 존엄을 지켜 사회주의를 빛내여나가는 장군님의 탁월한 평도에서

드리는 노래》의 시상이 떠오르고 선물표상이 자리잡았다. 한음부를 얻어내기 위해, 한소절을 만들기 위해 기술인 형님의 사색과 노력은 정말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노래가 완성되며 형상에 들어갔을 때는 더욱 그러했다.

그의 불같은 노력에 마음이 끌리어 지휘자도 연주자도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송가형상에 자신들의 지혜를 다 바쳤다.

위인희모의 열기가 새차게 끓어오르는 속에 송가가 연주되고 특음형상도

## ◎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한 길에서 ◎

### 비범한 예지와 드림없는 의지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수 없듯이 제국주의자들의 전략본성은 변할수 없다. 평화는 오직 제국주의와의 타협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남

### 90년대의 《만경대갈림길》

주체86(1997)년 3월 어느 날이었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대한 시찰을 마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나라형편이 어려

나니 형님(김건일)은 큰 창작적충동을 받게 되었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에 대한 시찰을 마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 나라형편이 어려

## ◎ 인민의 축원을 받아 ◎

있었던 한 길을 마사 보습을 만들수는 없다. 우리는 길을 짚을것이 아니라 길을 계속 들어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 군력강화를 위하여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대우군근대 없었으며 국고도 령 비어있었다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지금 우리에게는 강력한 당과 국가도 있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도 튼튼히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현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끈질긴 괴담살책들을 단호히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자면 인민군대를 결정적

수기

관람하시는 자리에서 형님이 창작한 피아노협주곡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철학성있게 잘 지었다고 높이 평가하셨다.

그러시고는 우리 가정에서 3부자가 음악을 하고 손자까지 작곡가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해 뜻을 잘 들봐주도록 해야 한다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다.

그이의 두터운 믿음과 사랑, 크나큰 배려속에서 쟁쟁한 실력자, 인민예술가로 성장한 형님은 자기의 대표작인 위인형상의 송가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 ◎ 잊을수 없는 노래 ◎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중에는 《장군님과 아이들》도 있다. 이 노래는 어른들도 좋아하고있다.

4월도 봄명월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쳐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노래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애국헌신의 전선길을 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안겨오고 해주는 바다와 등산길에서 웃음짓는 아이들의 동심이 흘러든다.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사회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친다고 한다. 그것은 아이들의 밝은 눈동자가 현실을 거울처럼 받아들이기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아이들의 표정에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것이다.

후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국가의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이 땅의 아이들은 나라의 역군으로, 민족의 미래로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다.

아이들의 구김살없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 돌아쳐오는 검은구름, 눈비바람 다 막아주시며 아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미래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곤 한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자신께서는 멀고 험한 전선길을 걸으시면서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야영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창작자들의 작품이기 전에 온 나라 남녀노소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이 그대로 시어가 되고 선율이 된 노래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때에는 아이들이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며 자랐고 장군님때에는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을 부르며 자랐다고 감회에 젖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불라는 애국헌신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마음이 깃든 노래여서 오늘날도 길이 불리워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경민

4월도 봄명월 우리 장군님 초소의 병사들 찾아가는 길 야영을 떠나는 아이들 보며 차창에 손쳐주시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

노래의 구절구절을 되새길수록 애국헌신의 전선길을 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안겨오고 해주는 바다와 등산길에서 웃음짓는 아이들의 동심이 흘러든다.

무릇 아이들의 표정에는 사회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친다고 한다. 그것은 아이들의 밝은 눈동자가 현실을 거울처럼 받아들이기때문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아이들의 표정에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까지도 가능해지게 되는것이다.

후대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국가의 관심과 보살핌속에서 이 땅의 아이들은 나라의 역군으로, 민족의 미래로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고 있다.

아이들의 구김살없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이 땅에 돌아쳐오는 검은구름, 눈비바람 다 막아주시며 아이들을 사랑의 손길로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미래사랑을 가슴뜨겁게 느끼곤 한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자신께서는 멀고 험한 전선길을 걸으시면서요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야영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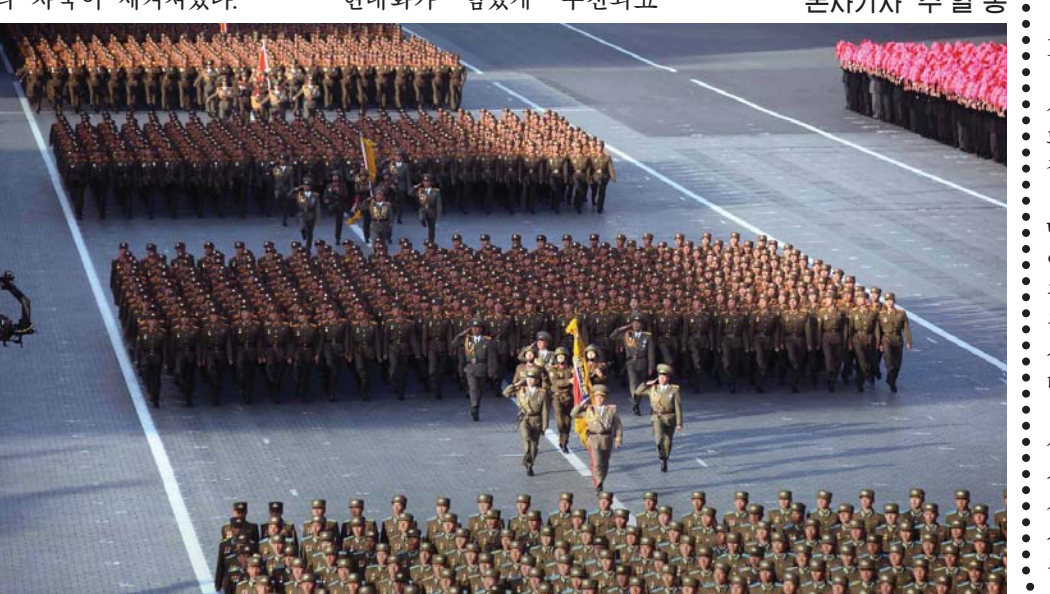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은 창작자들의 작품이기 전에 온 나라 남녀노소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마음이 그대로 시어가 되고 선율이 된 노래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때에는 아이들이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부르며 자랐고 장군님때에는 노래 《장군님과 아이들》을 부르며 자랐다고 감회에 젖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

불라는 애국헌신으로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하는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흠모의 마음이 깃든 노래여서 오늘날도 길이 불리워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그저 울고만 싶습니다. 원수님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며칠전 몸소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뵈고 그와 함께 진창에 빠진 야전차를 밀었던 평범한 농장원입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 제를 밀었던 우리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인민을 이처럼 떠받치는 분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갓가지 생활용품과 함께 그릇세척까지 받아안은 순간 이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가슴을 쿵-하고 울려주었습니다. 친부모인들보다 더 다스리셨습니까. 정말 우리 원수님이시야말로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님이십니다.》

《한생 곡식을 가꾸어오는 우리들이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이 알알이 맺힌 흰쌀이 천만군의 무게로 느껴져 모두가 선통받아안지 못했습니다.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쌀로 용기를 들고 원수님 말씀대로 농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 이것은 은파군의 피해지역 인민들이 날마다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안으며 더치고리치는 심장의 토로이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불

행을 당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커다란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해마다 자연재해로 하여 받는 피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공화국인민들처럼 그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닥쳐도 마음이 든든하고 용기백배하여 일터서는 인민, 재난을 당하기 전보다 더 좋은 보급자리에 안기어 삶을 누리는 인민이 더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들의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다.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물이 채 찌지 않아 군의 일군들도, 도의 일군들도 아직 울음을 하지 못하고있던 대청당에 그것도 감탄만 절박한 협박처럼 그 길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오실 줄을...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감람에 빠진 차를 뚫으며 험한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을 대청리인민들은 지금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세상에 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정도가 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들을 위해 사랑과 정과 헌신을 다 바치시는 분을 더는 알지 못한다. 지금도 몇해전 큰물피해를 입었던 함북도와 라선시에 전해졌던 전선같은 사랑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깊은 회억속에 떠올리곤 한다. 불난 곳에는 남는 것이 있

어도 큰물피해는 건질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삼시에 모든것을 삼켜버리고 휩쓸어간 대홍수로 거리와 마을은 자기의 형체를 잃었고 사람들은 한지에 나왔었다. 그러나 인민의 아픔을 가장 큰 비상사태로 여기시며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채로 기울여주셨다.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에 떠받들려 커다란 재앙이 휩쓸었던 땅에 이전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황홀한 보급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이렇게 전했다. 《북조선은 려명기건설을 중단하고 200일전투의 방향을 전환할 정도로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에 국력을 집중하고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말에도 태풍어파로 라선시에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하자 김정은위원장께서 수차례 피해지역을 현지지도하시고 국가적관심을 집중하여 한달만에 피해복구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북조선은 대규모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공병력을 비롯하여 국가적관심과 령망을 집중하여 피해복구를 하곤 한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멀리에 있긴, 가까이에 있긴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란 마지막 한사람까지 따듯이 감싸안아주는 은혜로운 감의 품이다. 그 품속에 어제날에는 라

선시와 함북도의 평범한 인민들이, 오늘은 대청리의 이름없는 농장원들이 아니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이 모두 안전 삶의 회향과 행복을 한껏 느끼고있는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만이 딱 차있다. 언제나 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들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 인민위전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느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오묘와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당조직들은 어머니된 심정으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의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빛내여주어야 한다고. ... 이렇듯 인민에 대한 정과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분 이시기에 이번에도 국가적 중요회의에서 집과 가산

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그리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는가. 정녕 인민을 위해서는 한 몸이 실야 한알의 모래알이 되어 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성관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인민들에게 안겨 줄 재부가 한가지한가지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고 인민이 불행과 아픔을 당하면 그것을 가셔주시기 위해 밤잠도 미루시며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온 나라 인민이 안겨사는 삶과 행복의 영원한 보급자리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 《우리에게는 원수님품이 있습니다》

### 은파군 대청리 피해지역 인민들의 진정한 토로

《큰물이 쏟아져 정든 보급자리와 봄내 여름내 정성을 다해 가꾸어오던 포진이 잠겨버렸을 때에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 오시었지요. 그땐말로 태양을 본것과 같다고 할까. 그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즈음 저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사회에서 태어나 이번과 같은 재해를 당하였으면 인민들에게 하구요. 아마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굶어죽든가 스스로 세상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는 원수님품이 있습니다. 집과 재산은 큰물에 다 떠내려 갔어도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으니 우리 생활은 전보다 더 좋아지고 도리어 누구나 부러워하는 만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은파군 대청리의 한 너성농장원)

《식료상점에 회귀한 물고기들을 부리우는 것을 보면서 당에서 수재민들을 참으로 세심히 보살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글썽 읊지구의 모든 세대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난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에서 수재민들에게

보내준 물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안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와보니 낮에 상점에서 보았던 그 물고기가 정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면 산촌의 고장이어서 회귀한 물고기를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세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마음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물고기였지만 섣부른 수저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인민의 소박한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는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은 정말 세상에 없습니다.》

(은파군의 한 공장 로동자)



## 은파군 대청리 피해지역에서

모든 힘을 집중하여 큰물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각지에서 피해복구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함북도와 은파군 대청리일대에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피해복구사업이 적극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필요한 령망을 편성하여 긴급이동전개시하며 군내 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사업을 선행해달라 대한 조치를 취해주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인민사랑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게 일임하고 현지로 달려온 인민군인들은 립체전, 심벌전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도로확장공사와 물길과, 지대정리, 살림집건설 등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로확장공사에 떨쳐나선 인민군인들은 피해복구에 필요한 물동수송에서

도로확장공사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불리한 조건을 완강히 극복해나가 고있으며 지휘관들은 튼튼한 기계를 가동력을 높이고 도로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물길과와 지대정리에 동원된 인민군인들도 중기계들을 공사에 적극 리용하면서 대청리지역의 물길을 번듯하게 일신시키고있으며 지대정리에서도 공격정신을 발휘하고있다. 함북도와 은파군의 인민군들과 근로자들도 피해복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들은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일대를 찾으시어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일일이 취해주시고 국부위원장 예비랑까지 해제하여 보내주도록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하늘같은 그 사랑에 높은 열의로써 보답하기 위해 분발해나섰다. 이미 배수로제기와 포진물 빼기를 결속하고 피해입은

논밭에서 농작물의 생육조건을 개선하는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한편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대청리에 세트를 비롯한 많은 건설용자재와 설비들을 긴급수송하기 위한 물동수송을 적극 벌리고있다. 철도성에서는 건설용자재를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드는 한편 철도국, 분국들에서 열차들의 운행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운수부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세트들을 비롯한 많은 건설용자재와 설비들이 은파군에 긴급수송되고있다. 난관과 시련은 적지 않고 해야 할 일도 방대하지만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떠선 군민들의 드높은 애국열의가 있어 머지않아 큰물피해는 성과적으로 가시어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 공화국의 품에 안겨

###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능있는 배우, 연출가로 (1)

장장 100여년을 헤아리는 조선영화사의 갈피에는 배우로서, 연출가로서 사람들의 기억속에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남긴 인민배우 박학도 있다. 박학은 민족수난의 비운이 철철이 드리웠던 망국초기인 1914년 12월 평양에서 출생하였다.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콩나물장사, 물장사를 하면서 가난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는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돌아상업학교(당시)과정을 마친 그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일본대학 예술과에 입학하였다. 재학기간 그는 진보적인 조선사람들이 조직하였던 3.1극장(후에 조선예술좌로 개칭)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이 단체에서는 주로 《춘향전》과 《심청전》을 비롯한 민족고전물들을 비롯하여 경향성이 좋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창작공연하고있었다. 이 단체의 영향을 받으며 박학은 망국노로 된 자기 처지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예술활동의 첫걸음을 내딛던 박학은 학비난으로 하여 신문배달, 유배배달, 림시로 동 등으로 허겁지겁 고학을 하였다. 그러나 학비난으로 끝내 졸업을 몇달 앞두고 중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으로 돌아온 박학은 서울에서 자신이 직접 동료들과 함께 연극협회는 극단을 조직하였으나 그것도 재정난으로 얼마 못가 파산되고말았다. 그후 극단연극좌라는 흥행극단에 망라된 박학은 함경도지방에서 순회공연을 하던중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보천보전투와 감산봉천투승리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박학은 항일의 전선적응영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경도의 정령도 가슴을 뽐냈고 그의 정신세계에서는 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박학이 영화에 처음으로 출연한것은 1938년 천일영화사(당시)에서 발성으로 제작한 예술영화 《도생록》(연출 안철영)이었다. 해방전 박학의 예술활동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연극분야였는데 이 시기 그는 풍자극인 《김삿갓》과 민중극인 《김소월》과 민중극인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등 조선사람의 민족의식을 고취한 진보적인 작품들에 많이 출연하면서 자기의 연기술을 부단히 연마하여나갔다. 식민지예술인의 불우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었던 그에게도 조국해방의 따뜻한 해살이 비쳐들었다. 박학은 새 조선에서 연극활동을 마음껏 해보려는 열망으로 서울에서 당시 조선프로레타리아 연극동맹 서기장이었던 강호의 추동 밑에 서고, 태일민, 황영일 등과 함께 극단예술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첫 작품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을 형상한 장막희곡 《독립군》을 무대에 올렸을 때 박학은 연극의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박학이행이 외세와 그 앞잡이들이 살판치는 남명의 무대 위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한것은 민족의 태양을 밝히는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 애국적인 거사였다. 당시 이 공연을 본 관중의 반응은 대단하였다. 관중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만고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하였다. 박학이 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였던지 당시 민족주의운동의 거두였던 백범 김구는 연극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나는 아

직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지 못했는데 이 무대에서 뵈었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말하였다. 한편 반동들은 첫날부터 이 작품의 공연을 과탄시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눈들은 《대한청년단》강패들을 내몰아 박학을 비롯한 여러명의 출연자들을 구타하고 20일동안이나 구금하는 망동을 감행하였다. 언제인가 부산지방공연때에는 2층의 객석에서 수류탄이 무대에 날아와 터지는 바람에 박학은 왼쪽팔에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학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공연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박학은 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료들과 함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남부연석회의를 지지하는 예술공연도 진행하면서 계속 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이 시기 박학은 극빈한 생활난으로 하여 감기에 걸린 둘째아들들을 약 한철 써보지 못하고 잃어야 하는 비극적운명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이때처럼 그에게 해빛이 그리운 때는 없었다. 1948년 8월 드디어 박학은 동료들과 함께 진정한 삶의 품,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찾아 사신을 해치고 공화국북반부로 향할 힘찬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박학은 영화화영소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투신하는 한편 새영화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력사적인 창조사업에 자신의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박학은 해방후 첫 예술영화 《내 고향》(1949년)의 력사적 화폭에 주인공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출, 연기, 촬영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 지도를 받으며 창조된 이 영화에서 박학은 악질지주일뿐 아니라 친일주인 최정권의 아들 인물역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무에서 율로 창조한 영화라고 높이 평가하신 이 작품은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의의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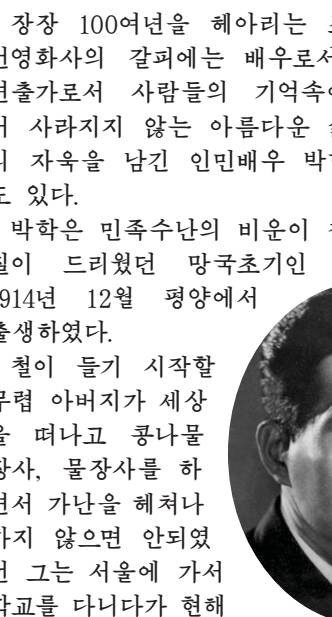
이있게 반영하고 해방후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적민족예술영화창조의 첫 개시를 선포하였다는 의미에서 획기적리정표로 되었으며 이후의 영화창조실천에 귀중한 디딤돌로 되었다. 박학은 이 작품에 이어 해방후 두번째 예술영화인 《용광로》의 주인공 최용수역을 그리고 세번째 예술영화인 분계연선 은파산산지방공연때에는 2층의 객석에서 수류탄이 무대에 날아와 터지는 바람에 박학은 왼쪽팔에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학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공연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박학은 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료들과 함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남부연석회의를 지지하는 예술공연도 진행하면서 계속 창조활동을 과감히 벌려나갔다. 이 시기 박학은 극빈한 생활난으로 하여 감기에 걸린 둘째아들들을 약 한철 써보지 못하고 잃어야 하는 비극적운명을 감수하여야만 하였다. 이때처럼 그에게 해빛이 그리운 때는 없었다. 1948년 8월 드디어 박학은 동료들과 함께 진정한 삶의 품, 아버지수령님의 품을 찾아 사신을 해치고 공화국북반부로 향할 힘찬 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공화국의 품에 안긴 박학은 영화화영소를 튼튼히 꾸리는 사업에 투신하는 한편 새영화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력사적인 창조사업에 자신의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었다. 박학은 해방후 첫 예술영화 《내 고향》(1949년)의 력사적 화폭에 주인공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연출, 연기, 촬영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위대한 수령님의 구체적 지도를 받으며 창조된 이 영화에서 박학은 악질지주일뿐 아니라 친일주인 최정권의 아들 인물역을 아주 훌륭히 수행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무에서 율로 창조한 영화라고 높이 평가하신 이 작품은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의의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깊

## 강원도의 피해지역들에서

강원도의 피해지역들에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고 통신선로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긴장하게 벌어지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피해지역에 높은 인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은 군민협동작전을 벌려 도적으로 백수심개소의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고 수심개소에서 우회 도로를 개척하였다. 또한 농촌리들에 대한 선로를 복구하여 통신을 보장하였다. 지휘부와 강원도의 책임 일군들은 먼저 피해지역들의 끊어진 도로와 다리를 시급히 복구하고 통신을 회복하는 사업을 선행시키기 위한 조직적사업을 짜고 들었다. 지휘부의 작전과 지휘에 따라 강화군과 철원군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에서는 군민

협동작전으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치열한 돌격전이 벌어졌다. 무슨 일에서나 불가능을 모르며 일관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는 인민군인들이 복구작업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감을 맡아안고 불이 번쩍나게 해제고있다. 피해복구사업에서 수송로 개척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강화군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련일 도로복구성공과 확대해나갔다. 철원군도로복구현장에서도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높이 파시되었다. 금강군과 평강군을 비롯한 피해지역들에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치열한 돌격전이 벌어져 성과는 날이 확대되었다. 통신보장을 선행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한 도안의 체신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통신선로복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체신성에서는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해결해주는 한편 책임성이 높은 일군들을 현지에 급파하여 통신보장을 위한 피해복구작업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작업이 벌어지는 속에 빠른 기일안에 도와 군들사이의 통신선로가 복구되고 뒤이어 농촌리들에 대한 통신이 회복되었다. 또한 수심개의 이동통신기지국들에서 통신보장을 시작되었다.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인들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도의 피해지역들에서 복구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박학선생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본사기자



대결 중심의 발로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첨단무기개발사업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얼마전 《국방과 학연구조》를 찾아간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저들이 군사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자화자찬하면서 그 무슨 《충분한 국방능력》을 갖추었다고 허세를 부리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 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최신무장장비들을 증강하고 현대화하겠다고 떠들어대고 한다. 조선반도정세를 긴장격화 시키고 몰아가는 무모한 처사로서 평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대결선언이 아닐수 없다. 따지고보면 남조선군부당국이 광고하는 방위산업정책이란 또 하나의 음흉한 대결

정책이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남조선군부가 개발도입하고 있는 첨단무장장비들은 고성능과 기술적제원에 있어서 명백히 공격형, 타격형, 침투형 무기들이다. 이런 방위형이 아닌 공격형무기들의 타격대상이 어디이고 누구인가는 삼척동자도 변히 아는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정체는 최대로 악화되어있고 인민들은 세계난에 아우성치고있다. 그런데

도 엄청난 많은 돈을 무장장비개발과 구입, 생산에 퍼붓겠다고 하니 그 호전성과 동족대결의 광기는 이전 보수 《정권》때도 조금도 다름없었다. 세상을 향해서는 《평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동족과 끝까지 해보겠다고 대결의 칼을 갈고있는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이중적행태는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 본시기자 안권일



전쟁무기반입중단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요즘 남조선의 《미래통합당》이 그 무슨 《체질》을 개선한다는 《혁신》을음으로 꾸성업니다. 싸구려장사군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위기》때면 누구 들으라는듯 《대혁신》, 《쇄신》, 《변화》를고아대서 귀를 소란하게 만들곤 했는데 이번에는 《환골탈태》의 《대수술》이라

식중, 과거 독재시대의 향수에 젖어있는 명칭이, 민족분열을 꾀하고 전쟁의 불길만 해대는 대결광들의 무리인 《미래통합당》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환골탈태》라는것도 알고보면 부나비의 변신이나 다를바없습니다. 우선 개명을 합니다.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에게 해만 끼치던 《부나비》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일도

무리를 잔뜩 그려넣은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다른 정당정강정책의 《속소판》, 《복사판》이라고 지적한 《미래통합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조아박았다는 그 무슨 《민주화정신》만 봐도 그렇지요. 《미래통합당》의 조상들은 《민주화운동》, 《민주화정신》이 저들에게 위령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당강령에 절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

《로착왜구당》의 본색을 드러낸 망동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 패거리들이 《친일매국당》, 《로착왜구당》으로서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내놓았다. 지난 8월 15일 남조선의 《광복회》 회장이 연설에서 《친일과청산》을 강하게 주장하자 《미래통합당》은 그를 만나기로 몰아대는가 하면 《친일과청산》을 반대해나섰다고 한다. 《미래통합당》패들의 이러한 망동은 결코 놀라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친일익이 체질화된 매국노들의 추악한 본성의 발로로서 그들의 몸동아리에 친일유전자가 짙게 들어차있기때문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시작된 《미래통합당》의 역사는 민족을 반역하는 친일매국의 력사였다. 오래전 리승만역도는 일제에 빌붙어 부귀영달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앞에 섰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친

일매국노들로 《미래통합당》의 시조인 《자유당》을 조작하였다. 이 당패거리들은 해방전 일제의 앞잡이노릇을 하면서 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말살하기 위해 미처나쁜 악질친일파들의 집합체였다. 이 역적들에 의해 해방후 자주권실현과 통일을 주장해나섰던 수많은 애국인사들과 인민들이 처형, 학살당하였다. 《자유당》의 후신인 《민주공화당》도 친일강계집단으로 악명을 떨쳤다. 그 우두머리인 박정희역도가 일제시기에 왜왕에게 멸사봉공하겠다는 것을 형사로 맹약하고 일본식식량으로 불리운 특등친일주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자기에 권력을 쥔 후 일본의 만고죄악을 덮어버리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몇푼의 돈에 팔아먹는 남조선일본 《협정》에 서슴없이 맞도장을 찍었다.

역적들이 그후에도 당권권을 여러차례나 바꾸었지만 더러운 친일근성은 꼬물꼬물도 달라지지 않았다. 리명박역도는 《대통령》명거지를 쓰기 바쁘게 과거에 구제되지 않는 일본과의 《미래지향관계》구축에 대해 운운하며 삼나라속속들에게 삼살개처럼 빌붙었다. 여도가 《대외관계회복》간판을 내걸고 한것이란 독도강탈책동에 열을 올리는 일본의 범죄행위를 구구 비호하고 일본 《자위대》 무력을 마구 끌어들이며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결력을 강화하면서 상진의 제침야욕을

부채질한것뿐이다. 《유신》독재자의 친일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해역도 역시 일제식민지통치를 미화분식하고 친일파들의 역적행위를 정당화하는 력사의과책동에 광분하였는가 하면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영원히 덮어주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로 삼나라속속들에게 군사적재침의 길까지 열어주었다. 이것은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이 민중의 향기가 두려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친일매

본시기자 한복순

교활한 민심기만술책

남조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색적인 행동이 사람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그것도 그럴것이 《미래통합당》이 지난 시기의 《국회》에서의 몸싸움과 막말, 밖에서의 단식과 삭발, 거리집회 등과 같은 불쌍사나운 망동으로 여당과 충돌하던것과는 반대로 행동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대안정당》, 《일하는 정당》을 떠들며 마치 자기들이 달라진것처럼 행세하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골목장패가 신사되었다》, 《해가 서쪽에서 뜨는가》라는 야유와 조소가 울려나오고있다고 한다. 승냥이가 양가족을 뒤집어쓰고 양을음소리를 낸다고

하여 고기먹는 본성이 변하는것이 아니다.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변신놀음은 남조선정치계의 평처럼 권력탈취를 위한 서푼자리 기만극에 불과하다. 여당을 《의회독재세력》으로 몰아대며 군소정당들의 불만과 배척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새로 작성하는 정강정책안에 《중도》를 조아박고 그들과의 정책공조, 정책연대를 적극 추진하면서 세력확장에 날뛰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한편 《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들이 주축이 된 《4.16연대》 등을 비롯하여 저들에 대한 반감이 깊은 시민사회단체들에도 찾아가 과거를 《반성》하는 노력도 부리었다고 한다. 지난 시기 《중도실용정

치》, 《친서민정책》을 떠들며 민심을 기만하여 권력의자리를 타고앉아서는 파쇼동치와 친제법정적으로 인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극심한 경제파국과 민생파국을 몰아온자들이 바로 《미래통합당》의 전신들이었다. 독초의 뿌리에서 독초가 나오듯이 《미래통합당》의 반인민적이며 파쇼적인 본태는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변한것이 있다면 권력탈취를 위해 민심을 기만하는 수법이 보다 교활해지고 음흉해졌것뿐이다. 그 음흉한 기만술책에 제정신있는 사람치고 누가 속아넘어가겠는가. 남조선인들은 얼굴에 잔뜩 분칠을 한 《미래통합당》의 검은 속통을 꿰뚫어보고있다. 본시기자 김용철

《부나비》의 《환골탈태》

자하는 《호랑나비》가 되겠다. 《미래통합당》의 족보에오른 당명도 수두룩한데 이제 또 바꾸던 고치던 맘대로짓만 어찌지 도적법세가나누만요. 새 이름에 《민주, 희망, 국민》 등의 의미를 담는다던데 현재 그런 단어들들이 들어간 당들이 존재하고있으니 이거야 남의것을 훔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긴 바늘도적이 소도적되고 세살적 버릇이 여느까지 간다는데 《차떼기당》, 《도적당》의 후예들이 단어 몇개쯤 도적질하는것이야 뭐 큰일도 아니지요. 더 웃기는것은 《호랑나비》처럼 보이려고 《부나비》의 날개에 얼룩덜룩한

그러나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4.19인민봉기, 부산, 마산인민항쟁, 광주인민봉기, 6월인민항쟁뿐 아니라 리승만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싸운 민주화운동들도 정강정책에 열거하였다고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리승만독재시기의 민주화투쟁을 《2.28대거민주거화운동》, 《3.8대천민주거거》, 《3.15민주의거》라고 써놓긴 했는데 이거 야단 아닙니까. 《죽부》라고 내세우던 리승만과 저들의 원조상인 《자유당》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고 그자들이 반인민적통치와 독재정치를 실시했다는것을 《인정》한 셈으로 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신》독재를 비롯한 군부독재 《정권》들도 모두 《부정》해버렸습니. 어찌까지만 해도 《5.16은 혁명》이라고 고아대며 《유신》독재자를 칭송하던자들이 돌변하여 《아니다》라고 하는 식이나 이런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야 할지 제손으로 제 눈을 찢었다고 할지 어찌든 심한 자체모순이 아닐수 없습니. 생물학에서는 갑작변이라는데 있는데 제 조상을 부

《국회》에서 《일하는 정당》 흉내를 내며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있는데 쇠치레대와 합마를 들고 몸싸움을 하던 《관장관국회》, 《동물국회》를 이제는 베타이 매고 뺨치고 앉아 뒤다리나 잡아당기면서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세월》호유가족을 찾거나 《호남을 돕겠다》고 광장에 내려간다면 변하기만 한듯이 분주탕을 퍼워대는데 《정글정글》, 《회척먹고 쟁쟁먹고 그것도 모자라 뺨까지 발라먹고》, 《5.18은 폭도들의 란동》, 《광주,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라고 뇌까린 망발에 대해 공식사죄도 없는자들의 뻔뻔스러운 아마 노래기 회척먹을 정도입니다. 이쯤했으면 《미래통합당》의 《환골탈태》라는것이 어떤것인가 짐작할수 있을겁니다. 그것들이 바라건 권력이 지 민생이 아닙니까. 파쇼독재이고 사대굴종과 동족대결입니다. 조상도 유전자도 그대로이고 사람도 사대와 독재의 후에들 그대로인 《미래통합당》이 《환골탈태》라는 허울을 내뿜는다고 거기에 유혹되면 또 어떤 큰 화를 입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그 본성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미래통합당》- 《부나비》인것입니다. 김정혁

남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자필진술서 처음 공개

남조선언론 《MBN》에 의하면 지난 14일 《동북아력사재단》이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과거 일제의 성노예만행을 인정한 범죄자들의 자필진술서를 공개하였다. 진술서는 패망후 포로된 일본군인들이 성노예범죄에 대해 자필로 쓴것으로서 《1941년

관동군사령부의 명령으로 《위안소》를 만들고 조선녀성 30명을 강제연행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무려 4 000명의 성폭행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등 당시의 범죄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있다. 단체는 이 진술서들을 근거로 학술회의를 열고 해당 군

체적자료와 분석내용을 밝혔다.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은 일본군성노예문제에 아시안여성들의 인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국책동을 총체적으로 파헤치기 위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시기자



조선인의 강제동원물과 사본들을 보며 주저하는 대 자료

지금으로부터 75년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다. 오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날을 기념하는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날에 본 일본의 모습은 어떤가. 력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나라라면 어찌날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인민들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운 범죄행위에

대해 솔직히 반성하고 사죄해나서야 마땅할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8.15에도 일본은 자그마한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환경상과 문부과학상, 평토담당상, 총무상 등 일본정부의 각료 4명이 야스구니진자로 벗어났을 뿐이다. 8.15를 맞으며 현직 각료가 참배한것은 4년만에 처음이고 그 인원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정권이후 가장 많았다고 한다. 지어 이자들은 야스구니진자를 각료자격으로 참배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예기

를 들을 일이 아니다》 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본수상의 언행은 더우기 한심하기 그지없다. 아베는 이번에도 다시 야스구니진자에 공물료를 보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전족전물자추도식에 참가하여서는 피로 얼룩진 과거 력사에 대한 반성대신 《적극평화주의의 기

을 버리고 채침야망을 굳히는 날로 되고있는것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침략하고 억압한 침략전쟁을 《동양평화》를 위한 전쟁으로 묘사하고 수백, 수천만에 달하는 학살을 수십, 수백백명의 《희생》으로 둔갑시켜오고있다. 지어 라민족의 수십만 녀성들을 전쟁마당에 끌고다니 투대형반인륜범죄마저 《자발적인것》으로, 《돈을 받고 한 행동》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력사를 외곡한 교과서들이 빼적이 출판되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이 아니다. 다른 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한사코 제방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이른바 《보통국가》의 미명하에 침략전쟁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군사비로 탕진되고있다. 2020년도 국방예산이 력대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2019년도보다 1.2%나 더 늘어나고 로골적인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제창되고있는 사실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이 는안의 현실로 다가오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런 일본이 어디로 갈지는 묻지 않아도 변한 일이다. 본시기자 박철남

삼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조선사람들을 집단수장한 살인악마들

일제가 과거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감행한 귀족같은 살륙만행은 그 규모와 잔인성은 있어서 세계의 그 어느 력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였다. 패망직후 일제가 감행한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의 진상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배와 함께 동해로 바다에 투수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실천에 옮긴 극악한 대학살범죄였다. 일본방위성 전쟁사자료실에서는 1945년 8월 19일 해군성 운수부부가 오미나토해군경비부 참모장앞으로 보낸 전보가 발견되었다. 《우끼시마마루》의 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전보는 오미나토해군경비부가 보낸 제181439호 전보에 대한 답장이었다. 당시 령함군의 명령으로 일선병행에서 100t급이상 되는 선박들의 항행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000t이 훨씬 넘는 《우끼시마마

루》의 출항이 암암리에 승인되고 무난하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계획적인 폭침범죄사건의 실격을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일제는 《우끼시마마루》가 부산으로 가게 된다. 조선으로 가는 배에는 이깃밖에 없다고 속여 정원이 훨씬 넘는 수장은 조선사람들을 태웠다.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서 일본의 서부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던 《우끼시마마루》는 유로수를 보충한다는 미명하에 마이즈루야바다로 배머리를 돌리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범죄적용계를 숨겨보려는 속임수였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 당시 《우끼시마마루》의 승조원은 이 배가 출항시에 얼마 되지 않고 있는 연료를 가지고 떠났다고 하면서 이것은 《우끼시마마루》가 예상초 부산항까지 항행할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증언하였다. 배에 타고있던 조선사람모두는 저주로운 일본땅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마칠내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기쁨과 흥분

으로 하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흥분은 얼마 가지 못하였다. 갑자기 《망-》 하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배가 동강이 나면서 집체같은 바다물이 밀려들어와 수천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던것이다. 《폭발은 기관실이 있는 배 밑에서 일어났다. ... 선실안에 있던 동료들은 아우성을 치면서 갑판으로 올라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때 갑판에서는 피이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조선인으로서 일본해군의 헌병노릇을 하던 백모라는 사람이 갑판으로 뛰어나오더니 일본놈들이 화약을 리뜨려 배를 가라앉게 하였다》고 회담을 하면서 무속으로 고향을 왔던것이다. 이때에야 우리는 일본놈들에게 속히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아우성과 함께 배는 바다물속에 잠기고말았다.》 이것은 《우끼시마마루》 폭침당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회상담의 일

부이다. 《우끼시마마루》가 폭침된 후 일본당국자들은 서둘러 이 사건이 미군이 부설한 기뢰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불가피한 사고》였다는 《조사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건의 진상을 가리움으로써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숨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었다. 폭침당일인 1945년 8월 24일로 말하면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가는 항로의 기뢰해제가 끝난 시점이었다. 《우끼시마마루》는 항행비대신호로부터 안전신호를 받은 후에야 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실들은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이 사전에 일제가 면밀히 계획하고 실행한 자객극이며 조직적인 조선인자립단살인사건이라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은 침략과 함께 일제가 몸에 배인대로 배인 일제야수들만이 저지러수 있는 추악한 반인륜적범죄사건으로서 세월이 가도 영원히 지워질수 없는 사건이다. 본시기자 주광일

과거로 질주하는 삼나라

발아래 세계의 다양한 과정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현 일본정권인들의 외곡될대로 외곡된 력사의식, 자랄대로 자란 제침야망의 일단속 그대로 엮을수 있는것이다. 야스구니진자로 말하면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도조 히데키 등 1급전범자들이 합사된 곳이라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야스구니진자에 공물을 보내고 참배하는것은 침략전쟁에 광분하였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인 동시에 과거의 침략력사를 되풀이하겠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과거 력사에 대해서도 반성의 뜻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외교, 안보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운 《적극평화주의》를 주장한것도 문제가 없다. 《적기지를 선제공격할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 도입추진 등을 두고 발언한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평가가 아니라 전쟁을 부르짖고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치닫고있는것이 바로 오늘의 일본이다. 이런 일본에게 있어서 8.15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피로 얼룩진 력사를 누우치는 날이 아니라 복수의 칼

고있는 형편이다. 일본이 아니다. 다른 민족의 신성한 영토를 한사코 제방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이른바 《보통국가》의 미명하에 침략전쟁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군사비로 탕진되고있다. 2020년도 국방예산이 력대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2019년도보다 1.2%나 더 늘어나고 로골적인 《적기지공격능력》보유가 제창되고있는 사실은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이 는안의 현실로 다가오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이런 일본이 어디로 갈지는 묻지 않아도 변한 일이다. 본시기자 박철남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수백리에 뻗어나간 자연흐름식물길

은 나라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집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정면돌파전으로 사회주의변영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는 올해에 황해남도의 대규모관개체계가 훌륭히 완성되었다.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여 황해남도의 농사를 건설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더욱 완성하여 흥풍을 모르는 농업생산도대를 마련하는데서 큰결실을 내리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 100(2011)년 4월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두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시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편성, 자재와 자금, 건설자들의 후방보장에 이르기까지 황해남도의 물길건설과 관련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황해남도의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데서 물길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깨어리시고 대자연개조투쟁으로 힘있게 불리일으키시었다.

그러하여 2012년 1월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착공되었다. 개천-래성호물길보다 전반적공사량이 더 많은 황해남도물길건설은 압만굴학과 룡량만도 1 180여만㎡에 달하고 수십개의 물길굴과 각종

구조물, 대규모용수장판들을 가진 190여km의 물길을 형성해야 하는 자연흐름식관개망에서 규모가 제일 큰 대건설전투였다.

그러나 건설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이겨내며 사회주의조선의 재부를 마련하는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건설자들은 사뭇치는 강물에 뛰어들어 가물막이언제를 쌓아올리고 새로운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면서 저수지언제기초굴착과 성토, 장석쌓기와 콘크리트타입, 물길굴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대자연을 다스리며 5년간의 간고한 격전을 벌려 2017년 1월부터 2단계공사에 진입하였다.

2단계공사도 매우 어렵고 반대하였지만 건설자들은 살을 에이는 강추위와 찰흙을 퍼내고 대형화물자동차들과 굴착기의 가동률을 높이며 언제기초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결했다.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을 강한 의지로 이겨내며 한치한치언제를 쌓아온 건설자들의 애국의 피와 땀은 콘크리트타입의 총층마다에 스며들어 2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무덤언제

공사가 단 1년만에 마무리되게 되었다.

중기계획의 우렁찬 동음속에서 돌체취와 울림, 장석쌓기 등 사색언제건설이 립체적으로 벌어져 든든히 다져진 저수지언제가 《자력갱생》이라는 대형굴방을 새겨놓고 2019년 4월 우뚝 솟아올랐다.

그러나 하면 물길굴과 흙물길건설장들도 불도가나마냥 쪼아번졌다.

건설자들은 불리한 압질조건으로 수십m구간의 물길굴이 봉락되었지만 주저함이 없이 매일 수백m의 강랑을 처리하여 단 한달만에 복구하고 땅압전잠관체공크리트타입을 두달동안에 끝냄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건설자들은 10만산대발파의 피성으로 흙물길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인 청단군 운곡지구구의 수백m에 달하는 천연암반구간을 단숨에 들어내고 공사를 제기일에 끝낼수 있는 진장을 열어놓았다.

이 나날 원기가 적게 들고 제작이 간편한 자동변에 의한 몰탈주입기, 방차운행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회전원반식방차채무전철기를 비롯한 물길건설자들이 내놓은 수백건의 기술혁신성품들이 도입되어 은을 졌다.

건설자들은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한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을 훌륭히 일떠세우고 물길건설장주변의 산과 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나무들을 심어 풍치를 돌구었다.

황해남도물길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서해북쪽의 드넓은 전야에 관개용수를 원만히 대주어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나라의 서부지역에 관개망이 특색있게 형성되어 해마다 수천만kWh의 양수동력용전력과 수많은 양수설비들을 쓰지 않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대지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킬수 있게 되었다.

황해남도물길의 완공을 통하여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자력갱생기치높이 비약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가 다시금 힘있게 과시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자력갱생

꽃피는 꿈과 희망

공화국에서는 세상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하며 자기의 꿈과 희망을 꽃피워가고있다.

그들중에는 국제무대에 나가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떨친 어린이, 청년대학생들이 적지 않다.

최근년간에만도 제7차 소련국제물스카그랜드피아노음악경연 및 축전 등에 나간 공화국의 어린이들이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고 제27차, 제28차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공화국의 대학생들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적인 두뇌경쟁마당을 조선판으로

펼쳐 하였다. 공화국에서는 그가 누구든 남다른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적극 찾아내어 꽃피워주고있다.

사모로 고마운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현실이다. 하기에 조선을 방문하였던 한 해외동포는 《사람

세계적으로 첨단치료기술의 하나로 되어있는 불임치료기술을 립상실천에 도입하자면 값비싼 설비와 시약을 비롯하여 많은 비용이 든다. 평양산원 연구집단은 보건은 사회주의영상이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상징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같이 새겨안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로운 치료기술확립에 필요한 배양액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불임치료기술을 립상실천에 도입하려면 과학적으로 담보된 배양액들이 있어야 했다. 남의것에 의존해서는 그 전망을 담보할수 없기에 이곳 연구집단은 배양액들을 자체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초월경이나 다름없는 걸이었던 연구성원들은 전문연구단위들과의 연계밑에 배양액의 조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한가지 성분함량을 밝히기 위해 문헌자료들을 파고들면서 탐구

의 길을 이어갔다. 마침내 이들은 어느 한 제약공장에서 생산되는 약물이 표준배양액의 성분과 거의 유사하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그에 기초한 수십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여 끝내 목적하는 수치들을 얻어냈다.

성공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기쁨에 이들은 서로 부둥켜

고싶어.) 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있다.》

일본에서 학비가 가장 높다 고 하는 공립대학만 봐도 4년간의 학비가 400만엔이상에 달하고 사립대학은 그보다 30~50% 더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많은 청소년학생들이 배움의 꿈을 짓밟는 자본주의사회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일본의 2019년 자살대책백서에 의하면 자살자중 20살 미만은 그 전년에 비해 수십명 늘었다고 한다. 오죽하였으면 일본후생노동성의 한 관리가 《10~20대의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고있으며 이 문제가 사회의 중대한 과제 로까지 나서고있다.》고 개탄 하였겠는가.

이와 같이 사람들 돈의 노예로 만드는 자본주의사회의 교육을 어찌 건전한 사회적 인간을 키워내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은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시켜주고 재능의 싹도 찾아 꽃피워주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와 얼마나 대조적인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공화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자기들이 살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누구나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석 광혁

체로 만들어낼수 있는 실험결과를 얻어냈다. 중요측정설비에 쓰이는 랭매제를 자체의 힘으로 연구 도입한 성과도 마찬가지로이다. 랭매제도 자기의것으로 해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건 이들은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필요한 원료를 찾는데 힘을 냈었다. 술술에서 바늘찾기와도 같

을 안고 찾아온 평양산원 연구사의 불같은 모습에 감동된 그 대학의 연구집단이 발 벗고나섰다. 보건성과 평양산원의 일군들도 연구사업에서 애로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며 적극 떠밀어주었다.

결과 연구집단은 새로 만든 랭매제를 리용하여 연구사업에서 또 한차례의 전진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곳 연구집단은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첨단치료기술확립이라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여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 받는 영예를 지니었다. 이 과정에 이곳 연구집단은 자기의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치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겠다는 투철한 판공과 립장을 가질 때 그 어떤 첨단학의 봉우리도 돌파해 나갈수 있다는 진리를 새겨안았다.

본사기자 류현철

제힘으로 안아온 창조의 열매

안고 눈물을 흘리었다. 남에 대한 의존심을 뿌리 뽑고 자체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투철한 판공은 바로 자기 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는것을 연구집단성원들은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첫 성과에서 신심을 가진 이들은 응용범위를 넓히기 위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여러 용도의 배양액들도 자

있지만 남의것이 아니라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치료방법을 확립하려는 이들의 의지는 한치의 탈선도 몰랐다.

이 나날 어느 한 대학의 연구사가 랭매제와 비슷한 물질을 개발한 자료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 물질을 실험에 맞게 연구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랭매제를 대신할수 있다는 확신

세계와 경쟁하는 《은하수》 화장품

《세계와 경쟁하라, 세계에 도전하라, 세계를 앞서 나가라!》. 평양화장품공장의 제품건설에 나붙은 글씨이다.

평양화장품 공장에서는 《은하수》화장품을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명제품으로 만들 야심만만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나가는 과정에 화장품의 다중화, 다양화를 실현하였다.

고려적재추출성분을 리용하여 피부보호나 로화방지효과만이 아니라 피부병에 뚜렷한 치료효과를 주는 치료용화장품들과 기초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세척용화장품, 분장용화장품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지수는 대단히 많다.

특히 염색크림은 지난 시기에 비해 염색시간이 짧고 효과적이 눈높이로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너성품의 인기를 끄는 여러가지 용도의 향수들과 에기크림, 에기물비누 등의 세제품들에도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온 이곳 연구집단의 지혜와 열정이 깃들여있다.

본사기자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음향설비개발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

현대적인 음향설비의 개발, 생산기지로 널리 알려진 메아리음향사에서 생산하는 마이크와 증폭기, 마이크식화면노래반주기, 지능형화면노래반주기를 비롯한 음향설비들이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용

되고있다. 사람들에게 창조와 위훈의 활력을 부여주고 즐거움과 향만을 더해주는 《메아리》음향설비들은 김일룡사장을 비롯한 메아리음향사 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깃들여있다.

불과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85년 3월 마이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술창안조가 무어졌다 고 한다. 당시 많은 음향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있었다.

이러한 실례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의 힘으로 음향설비를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음향설비에서 기본인 마이크를 연구개발하는 기술창안조가 조직되었다. 마이크를 개발한다고 해도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들의 수준에 꽤 올려세울수 있겠는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으나 기술창안조 성원들은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피라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 마침내 첫 마이크시제품을 개발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우리가 개발한 연구대전체축전기마이크시제품을 보아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319형영구대전체축전기마이크》라고 친히 이름까지 달아주시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7월 메아리음향사를 창립해주시고 우리 식의 음향설비생산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그후 김일룡사장은 기술자, 종업원들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자체의 힘으로 첫 마이크식화면노래반주기를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었다.

《그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만든 무선마이크식화면노래반주기를 보아주시고 매우 만족하시면서 혁명학원들과 전국의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로원들에 보내주에 대한 크나큰 은정 하였습니다.》

절세위인들의 령도의 손길아래 메아리음향사는 음향설비생산에서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지금 메아리음향사에서 생산되는 음향설비들은 나날이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질이 비약히 높아지고있으며 인민들의 지능생활과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서 한몫 담당하고있다.

김일룡사장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보다 문명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음향설비개발에 탐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 예국의 길, 오늘도 그 길을 그의 말마들이 아버지와 함께 걷고있다.

김일룡사장은 말하였다. 《우리 인민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의것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애국투쟁이 오늘의 정면돌파전이 아니겠습니까?》

본사기자 홍범식

공화국의 금동은정차재배원에서 차일따가 한창이다. 예로부터 차를 두고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신선의 음료》, 《만병통치의 장생불로약》으로 불려왔다.

은정차에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을 하는 성분과 펄수아미노산,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을 유연하게 하는데 좋으며 피로회복, 향암, 로화방지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해준다.

세계적으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있는 차나무는 북위 36° 이북지역에서는 재배할수 없는것으로

공인되어왔다. 그러나 차를 자체로 생산하여 인민들이 좋은 차를 마음껏 마시게 하려고 마음 써오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관심속에 은정차는 공화국인민들의 생활에 향기와 정서를 더해지게 되었다.

최근년간 은정차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나 인민들이 자기 땅에서 생산한 차를 마시며 차문화에 향유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있다. 금동은정차재배원에서는 은정차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길이 전

해갈 마음을 안고 예쁘게 가꾼 차잎을 정성들여 따들이고있다. 지난해보다 1.5배이상의 더 많은 차잎을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겨우내, 보내 현신 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바쳐 좋은 결실을 마련한 이들과이다.

그래서인지 수확의 기쁨속에 차잎을 따들이는 처녀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질 좋은 차잎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은정차향기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것 아니라.

본사기자

평양시안의 단고기집들의 요리경연 진행

평양시안의 단고기집들의 요리경연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최로 15일 평양단고기집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여러가지 병치료에 효과가 큰 단고기음식을 좋아하였으

며 특히 단고기장을 삼복철 몸보신음식의 첫자리에 놓고 지방마다 자기 고유의 제법을 전하여왔다.

민족음식을 장려하며 우리의 음식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단고기요리의 특색과 맛이 살아

단고기요리를 성의껏 만들어 내놓았다. 이번 요리경연은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단고기요리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 특색있는 만수원수화초공원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만수대분수화초공원에 특색이 넘쳐나고 온갖 꽃이 만발하여 공원을 찾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공원은 대형충추는분수와 여러 형태의 휴식구들, 꽃밭, 잔디밭으로 꾸러져 있다.

대형충추는분수를 중심으로 꾸러진 색유리휴식구와 참동나무대휴식구는 무더위속에서도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고 있다.

충추는분수 주변을 빙 둘러가며 형성된 꽃밭과 여러 개의 꽃밭에서는 만수국과



여름철에는 제정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야 한다.

《제정된 시간》은 인체생물시계의 요구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엄격한 기상 및 취침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에 제일 적합한 취침시간은 22시 30분부터 23시 30분사이, 기상시간은 5시 30분부터 6시 30분사이이다.

여름철의 무더운 날씨는 사람들의 잠시간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일단 제정된 시간에 기상하고 취침하는데 습관을 붙이면 잡자는데 주는 날씨의 영향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즉 아침에도 스스로 깨어나게 되고 체내의 생물시계도 틀리는 현상이 없어져 각종 생리활동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날씨가 무더워질수록 잠을 자고 깨는 것을 비롯하여 하루 일과를 절도있게 해나가는 것은 건강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본사기자

무지개는 해빛이 물방울에서 반사, 굴절하여 해가 있는 반대편 하늘에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아침무지개가 낀다는 것은 서쪽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날씨변화에 주되는 영향을 미치는 비구름은 보통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서쪽하늘너머에서 비가 내리면 그 지역상공에 물방울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침햇빛을 받아 무지개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무지개는 보통 소

나지는 생것, 말린것, 통줄임, 절임 등 여러가지로 가공하여 식용으로 쓴다.

나지는 동맥경화예방, 피출확장, 혈압낮춤, 독풀이, 성인병예방에 좋은 작용을 한다.

나지랭채는 몸이 허약한데, 고혈압, 동맥경화, 소화기 장애가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할 때, 간기능이 나빠졌을 때 먹으면 좋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나지 3, 오이 1의 비율로 음식감과 함께 소금, 간장, 파, 마늘, 겨자장, 참

그 가운데서도 남달리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높았던 젊은 중등인 영정과 심근, 유교는 남먼저 왜적격멸의 성전에 걸기해나섰다.

이튿날 사찰을 떠나기 앞서 불상앞에 풍악산생물을

## 속담과 뜻

- ◆ 장미개구리 호박잎에 뛰어오르듯. 귀마찰에 개구리가 호박잎에 뛰어오르듯이 별로 반갑지도 꾸미지도 않는 존재가 어디에 널리 뛰어올라온 경우에 비쳐 이르는 말.
- ◆ 칭찬만 하는이는 적이고 잘못을 가르쳐주는이는 스승이다.
- ◆ 달콤한 말로 귀맛이 좋게만 구는 사람은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타일러 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도와주는 스승이므로 잘못을 일깨워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라고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 한사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열사람 가는 길로 가라. 개별적인 한두사람의 의견보다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것이 실패가 없음을 이르는 말.

## 사화

### 왜적을 치자 (4)

글 김 정 민, 그림 리 성 일

그 녀자는 영준각의 최향화였다. 우리 군사들속으로 들어온 향화는 숨을 할딱이며 머리에서 무거운 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던 그는 기흥이를 발견하자 안도의 웃음을 피웠다.

《여기 계셨군요. 총소리 큰 곳에 계시잖아 알았어요.》 허나 권기흥은 유부러 나갔다.

《총자구그래? 이 사지판에...》

향화는 그 말을 타닥하지 않았다. 그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죽음도 이길 굳센 의지가 어렸었다.

《요기를 하세요. 종일 굶고야 어떻게 싸우시겠어요.》

향화는 함지의 보자기를 들고 주먹발을 들어 땀과 먼지로 번박이 된 병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병사들은 치사를 하면서 걸땀스럽게 먹었다.

권기흥은 그것을 먹을수가 없었다. 갑자기 뜨거울것이 목을 짝 채우며 솟구쳐올랐던 것이다.

《저녁밥을 지어가지고 오셨어요.》 향화는 빈 함지를 머리에 이었다.

《조심해가라구.》 당부하는 권기흥의 읊성은 물기에 젖어있었다.

이무렵 훈련원에서는 군대 해산식이 감행되고있었다. 왜놈과 친일매국역적들의 폐업에 속아 훈련원에 빈손으로 모여든 친팔백여명의 조선군대는 이 시각 어쩔바를 모르고있었다. 치렬한 총소리는 여기까지 울려왔다.

시간이 갈수록 정세가 더욱 험악해지자 왜놈들은 오후에 부랴부랴 조선군대의 해산을 선언하였다.

사방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삼엄한 경계망을 편 놈들은 조선군대의 건강을 모조리 잡아먹은 다음 《은사금》을 주면서 해산할것을 강요하였다.

도수훈련을 하는줄 알고 맨손으로 왔다가 불시에 이런 치렬리는 굴욕을 당하는 조선군사들은 비분으로 불부

# 《코드셰프》 도전경연에서 우승

김일성종합대학 전금성학생이 지난 7월에 진행된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래밍경연인 《코드셰프》도전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이 경연에는 중국, 러시아, 인디아, 영국 등 80여개 나라에서 3만 1000여명의 대학생, 프로그래밍분과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5학년 학생인 전금성은 10일 동안에 최대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난도높은 도전문제를 비롯하여 출제된 10개의 문제들을 모두 풀어 경연의 최고점수인 1000점 만점을 받았다.

결과 조건의 청년대학생들의 지능수준, 지적잠재력이 얼마나 한 높이에 있는가를 세계앞에 또다시 증명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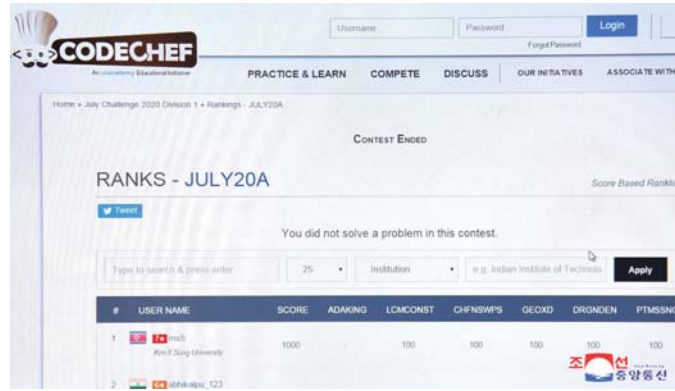
전금성 학생은 공화국의

수재양성기체인 평양제1중학교에서 공부하던 때에 제56차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따낸 전적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그는 《코드셰프》도전경연에 여러차례 참가하여 인터네트 상에 공화국기를 띄웠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코드셰프》도전경연에 처음으로 참가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8차례에 걸쳐 1등을 쟁취하였다.

본사기자



##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 장승업과 독특한 몽골법

장승업은 19세기의 우리나라 화단을 대표하는 재능 있는 화가이다.

그는 종래의 틀에 잡힌 구도와 화법에서 벗어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하면서 비교적 선명하고 독특한 화풍을 세웠으며 특히 동물화, 정물화, 화조화를 많이 그렸다.

더우기 그는 단발질로 조선화의 기본기법인 물감법을 당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민족의 회화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매화》, 《갈대 와 계》, 《련못가의 물족새》, 《매》, 《기러기》, 《군마도》 등은

그의 사실주의적 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10폭병풍의 긴 화폭에 한그루의 늙은 매화나무를 그린 《매화》는 그의 작품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그림의 하나이다.

《련못가의 물족새》, 《갈대 와 계》, 《매》 등에서도 그는 고도의 집약적수법으로 물감법을 능숙하게 적용하였다.

《련못가의 물족새》는 갈대우에 내려앉은 한마리의 물족새를 중심으로 하여 못가에 펼쳐진 가을모습을 서정적으로 그려냈었다.

갈대밀로 무리지어 밀려가는 계절을 그린 《갈대 와 계》는 《련못가의 물족새》와 쌍축을 이루는 그림이다. 물기찬 먹색과 담박한 밤색을 배합한 능숙한 단발질로 무성한 갈대와 계들의 생김새와 움직임의 재치있게 그려냈으며 가을바람부는 갈밭의 계절미를 표현하였다.

그는 다양한 주제의 특색 있는 회화작품으로 우리 민



《기러기》 (장승업 작)

다을날부터 세그루의 은행나무들은 자라면서 서로 가까이 조금씩 끼어들더니 얼마 안가서 아예 한뿌리에서 돋은 나무들처럼 합쳐졌다.

이름도 나이도 태어난 곳도 서로 다른 그들이었지만 나

라를 지켜싸운 예국의 마음은 하나이기에 이들의 넋이 깃든 나무도 하나로 뭉쳐 자라게 된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풍악산의 세그루 은행나무앞에 가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나사자란 이 땅을 지키는 싸움에서는 누구나 한마음, 한모습이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고 한다.

본사기자

## 빨리 하는 것

언제 봐야 행동이 굵은 아 들애를 보고 어머니가 지칭구를 했다.

《넌 뭐나 굵게 하는게 탈이야. 빨리 하는게 도대체 뭐가 있니?》

《부위님, 부위님!》 권기흥은 그를 끌어안고 애 러게 붙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린 남상덕은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부 려했다.

《기흥군, 왜놈들을, 저 원수놈들을 끝까지 치게. 그리구 의병으로 가게.》 하고는 끝내 숨을 거두고말았다. 눈물이 솟구쳐 눈앞이 흐 러졌지만 기흥은 자리를 차 고 일어나며 말했다.

《부위님상덕의 원수를 갚을자 앞으로 나서라!》 피와 땀과 고통으로 얼룩진 맨머리바람의 병사들이 섬섬 숨을 내쉬었다.

《포병대에 가서 폭약을 가져오라!》

복수조가 달려갔다.

얼마후 폭약을 안은 군사들이 파괴된 집들에 의지 하여 섬섬으로 육박해들어 갔다. 권말이 어느 군사도 섬섬으로 뛰어들며 폭약을 던졌다. 퇴색같은 폭음소리... 또 한 용사가 달려나 갔다. 또다시 폭음소리... 그들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저들이 누구드라?... 아, 내가 저들의 이름을 미처 알 아두지 못했구나. 저런 열 사들은 잊지 말아야 할테 데. ...》

기흥은 입술을 피나게 깨 물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

어 저 아수라 패물악마를 한두름에 꿰어서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고 돌아오겠 나이다.》라고 두손 모아 절하 고난 이들은 사찰뜨락밀 샘 물러달 풍지에 은뉘시앗을 한 알씩 정리 심었다.

정리 떠놓고나서 《태를 묻 은 소중환 이 땅을 짓밟고 무고한 중생들을 마구 살륙 하는 저 섬오랑캐들의 간악 무도에 의문을 참을길 없어 무성을 금하라는 불가의 계 를을 어기고 목탁과 념주를 쥐었던 이 손에 창칼을 잡 고나섰으니 부처님은 우리를 너그러이 살피주소서. 기

## 풍악산의 세그루 은행나무

서소문쪽으로 달렸다.

화약내와 가스냄새가 매 캐한 거리로 왜놈의 눈먼총알 이 날아와 기와장이며 유리 창을 들부셨다.

《나리, 나리!》 나무 달려오던 사람이 그 를 붙렸다.

그는 엇그제 밤에 만났던 인력거꾼이었다.

《형감, 정신있소? 싸움 판에 인력거를 끌고다니다 니...》

《부상자를 날라유.》 《뉘요?!》

아닌게 아니라 인력거에 는 머리와 가슴에 봉대를 친 채 병사가 한팔을 채박 에 드리운채 정신없고 실 렸었다.

《오는 방망이 가는 흥두 개라구 우리 군사들한테 왜 놈들이 녹아나유.》 하고 말 하는 인력거꾼의 얼굴에는 전날의 주눅잡힌 기색이란 표본만금도 없었다.

수건을 뚫인 얼굴이며 등 거리를 걸친 검붉은 옷들은 얼어제끼고 번들거렸다. 기 흥은 감사의 정에 복받쳐 인 력거를 켜 그의 손을 짝 잡았다.

《고맙수다, 형감님.》 《나리, 몸조심해유.》 그가 인력거꾼과 헤어져 평 양상대가 싸우는 곳에 다 달았을 때였다.

현 모시두루마기에 통영갯